

제14권 20호

2024. 10. 14~2024. 10. 27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코로나19 이후의 중앙은행의 변화 |
| 이슈분석 |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공습 |
| 금융경영브리프 | 월가의 큰 손을 닮은 AI 운용 ETF 등장
미국 · 유럽, 이민자 특화 핀테크 확대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송형은(hesong)

논단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진일
---------------	-----

이슈분석

연구위원	오유진(yujin.oh)
------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원	정안선(ansunc)
연구원	유승원(youth1)

금융지표

연구원	이예린(yerin.lee)
-----	----------------

제14권 20호

2024. 10. 14~2024. 10. 27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 01 | 논단 | 코로나19 이후의 중앙은행의 변화 |
| 04 | 이슈분석 |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공습 |
| 08 | 금융경영브리프 | 월가의 큰 손을 닮은 AI 운용 ETF 등장
미국·유럽, 이민자 특화 핀테크 확대 |
| 12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코로나19 이후의 중앙은행의 변화*

김 진 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 충격의 영향은 중앙은행을 비껴나지 않았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중앙은행이 새로운 자산들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행위도 늘어났으며, 기후위기 등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다루지 않던 주제들에도 점점 접근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새로운 중앙은행을 탄생시킬지, 나아가 우리의 금융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코로나 사태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장면을 가장 기억하게 될까? 자유시장 경제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리라고 가정하면, 가장 기억 남는 장면은 마스크를 사기 위하여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일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 가격 기능을 통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점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2020년에는 왜 사람들이 지정된 요일에만 줄을 길게 서면서 기다려서 소량의 마스크만을 구매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 할 것 같다.

❖ 통화정책의 혁명적 변화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를 바꾸었고 중앙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중앙은행의 원론적 기능인 통화정책의 변화를 보자면, 아마도 가장 세상을 놀라게 한 장면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2020년 3월 15일 일요일 저녁(우리 시간으로는 16일 월요일 새벽)에 기준금리를 100 bp 내린 결정일 것이다.

그 해 2월 중순에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은 개강을 2주 늦춘다는 안내문을 구성원들에게 보냈다. 예정되었던 3월 2일에 개강을 하지 않고 14일만 기다리면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고 캠퍼스에서 만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이다. 이 예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그 이후의 경험이 말해 준다. 그리하여 3월 16일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당일 오전에 수업이 있던 필자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온라인 강의에 익숙하고자 (평소보다 훨씬 일찍)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서 뉴스를

코로나 사태와
중앙은행의 변화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틀었는데, 생방송을 진행하던 한국과 미국의 아나운서들이 연준의 긴급 FOMC 미팅 소식을 전하면서 얼떨떨해하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보다 며칠 전에 이미 기준금리를 내렸고 또 며칠만 기다리면 예정되었던 FOMC 미팅이 열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던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으로 통화정책의 역할 확대

연준의 이런 대응은 곧 여러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중앙은행이 간접적으로, 즉 단기국채를 주로 거래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수행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대응 수준을 넘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자산까지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준은 물론이고 이웃나라 일본은행은 ETF을 포함해 더 많은 종류의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올렸고, 그런 방향에서 한국은행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글을 쓰기 직전 일본은행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양적완화를 너무 약하게, 안전한 국채만을 구매한다고 버냉키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던 일본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너무 다양한, 또 위험한 자산을 구매한다고 비판 받았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야 했는지로 주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코로나 사태의 극복과 인플레이션 충격

2020년 봄에 IMF는 세계경제의 그 해 성장률이 -5%보다 아래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코로나 이전에 세계경제는 3%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확장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보건의로 분야의 획기적인 발견과 결합한 덕분에 2020년 성장률은 -3% 정도를 기록하게 되었다. 물론 예전에 비하여 부정적인 숫자이지만, 당초 -5% 예상에 비하면 200 bp 정도 상승한 결과로서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확장적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경제학계에서는 1~2년 정도 논쟁이 컸었지만, 결국 2021년 후반 이후 갑자기 찾아온 인플레이션이 지난 몇 년 동안 세계경제를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는 모든 독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금융안정과 기후위기 대응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임 강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해방과 더불어 도입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였지만, 많은 서양의 중앙은행들은 초창기에 금융안정을 주된 역할로 삼았다. 가령, 미국의 경우에 두 번의 중앙은행 설립 시도가 실패한 이후 20세기 초반에 금융시장의 혼란이 와서 이를 극복하고자 만든 제도가 연방준비제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금융안정이 현대적인 중앙은행의 역할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한국은행법도 위기 이후에 개정되어서 1조 2항에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금융 패닉과 경제 붕괴를 겪으면서 더욱 급증했다. 인류 존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에 전념하여야 한다는 고담준론의 설자리는 전혀 없었다. 코로나가 창궐할 때 연준에서 일하는 예전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제 미시경제학자와 거시경제학자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연준에는 오직 보건경제학자만 존재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의 중앙은행은 여러 새로운 분야로 역할을 넓혀갔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보건위기는 우리에게 다른 장기적인 리스크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는 기후위기일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기후 이슈가 경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은행의 분석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중앙은행이 이러한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기후위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이어진다.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고민이 크다고 알려진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사회문제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도 이러한 틀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중앙은행의 변화는 성공할 것인가?

중앙은행은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현상이 그러하듯이 중앙은행이야말로 역사의 산물이다. 경제의 대안정기(Great Moderation)라고 불렸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 조정을 통한 미세적인 통화정책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는 그러한 ‘사치’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연준은 5년마다 자신의 정책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5년을 맞이할 통화 정책 운영방향의 틀(framework)을 정해서 발표한다. 연준의 2020년 정책 틀은 바로 직전 코로나 사태가 닥치면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운이 없었지만 운도 실력임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2025년 정책 틀은 앞으로의 5년을 더 평안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고민하는 새로운 중앙은행의 모델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기후위기 등
중장기적 위험에 맞선
중앙은행

새로운 중앙은행의
모델은?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공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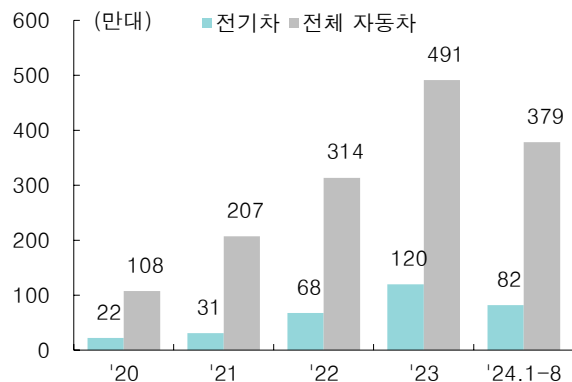
오 유 진 연구위원

주요국 관세 장벽과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여전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주로 유럽과 중남미, 동남아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영향력 확대로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등의 경영위기가 현실화되고, 태국에서는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외 주요시장에서 향후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차량 성능 차별화와 근본적인 가격 경쟁력 개선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주요국 관세장벽 및 전기차 수요둔화에도 불구하고 '24년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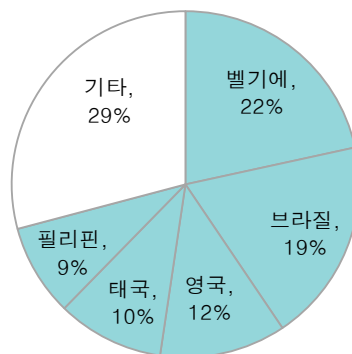
-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23년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의 25%를 차지한 전기차 수출이 크게 기여한 결과
- 초반에는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 물량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나, 이후 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수출 기여도가 빠르게 증가
 -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21년 4월 수출 시작, '24년 9월말 누적 수출 100만대 달성
 - BYD는 '23년에 전년대비 334.2% 증가한 24만 3천대의 자동차를 수출
- 유럽, 미국 등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 및 전기차 수요둔화에도 불구하고 '24년 1~8월 중국 전기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6% 늘어난 81만 8천대를 기록
- 벨기에, 영국 등 유럽과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이 중국 전체 전기차 수출의 약 72%를 차지

■ 중국의 전기차 수출 동향



주 : 전기차 = 순수전기차(BEV) +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자료 : CEIC, 중국자동차공업협회

■ 중국의 국가별 전기차 수출 비중



주 : 2024년 1~7월 합산 기준
자료 : 중국자동차딜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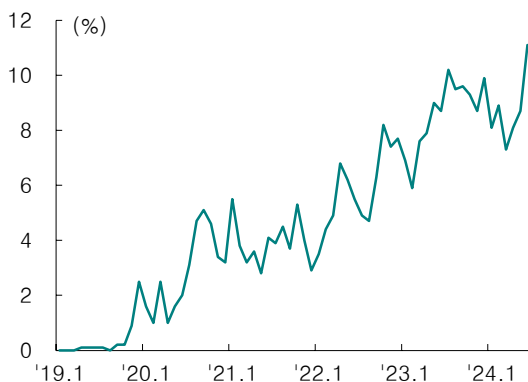
■ 유럽 내 전기차 판매는 보조금 중단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중국산 비중은 확대

-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정부 보조금 축소, 경제 불안 등으로 '24년 1~8월 전년 동기대비 4.2% 감소했으며, 동기간 전기차 침투율은 21.2%로 1.3%p(YoY) 하락
- 반면,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1년 2%대에서 '23년 8%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24년 6월에는 11%까지 치솟는 등 빠르게 확대
-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유럽의 고율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헝가리, 튀르키예 등에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중국계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
 - EU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 10%에 최고 35.3%p를 더하는 관세안 확정

■ 중국산 시장 잠식 및 투자 부담으로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기업의 경영위기가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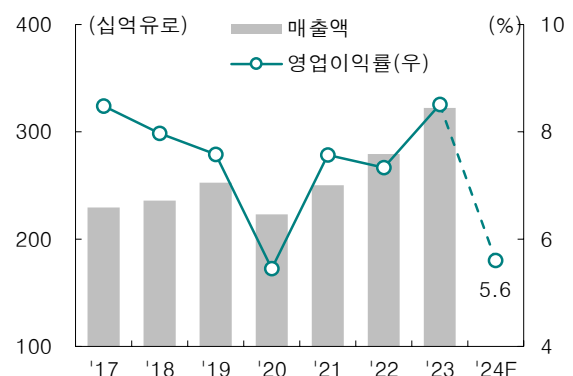
- 지난 9월 초, 폭스바겐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87년 역사상 최초로 독일 내 2곳의 완성차/부품 공장 폐쇄와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인원 해고를 검토한다고 밝힘
- 폭스바겐은 새로운 경쟁자(中 전기차)의 등장으로 독일 자동차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으며, 자국의 높은 에너지 비용과 노동비용, 투자 부담 등이 문제라고 지적
- 폭스바겐 경영진과 노조(IG Metall)가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폭스바겐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이유로 두 번 연속 연간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
 - '24년 영업이익률 가이드스 변경: ('24.4)7~7.5% → ('24.7)6.5%~7% → ('24.9)5.6%
- 과거 내연기관 기술력을 가진 유럽계 완성차가 중국 기업과 협력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는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이 유럽계 완성차와 협력하여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등 전기차 경쟁력에서 유럽이 중국에게 역전당한 상황
 - 스텔란티스/Leapmotor(中) JV는 지난 9월말, 유럽에서 저가 EV 판매를 시작

■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 비중



주 : EU+EFTA+UK, BEV 판매 기준
자료 : Dataforce, Bloomberg 제인용

■ 폭스바겐의 경영실적



주 : '24년 영업이익률은 9월 27일 전망 발표치 기준
자료 : refinitiv, Volkswa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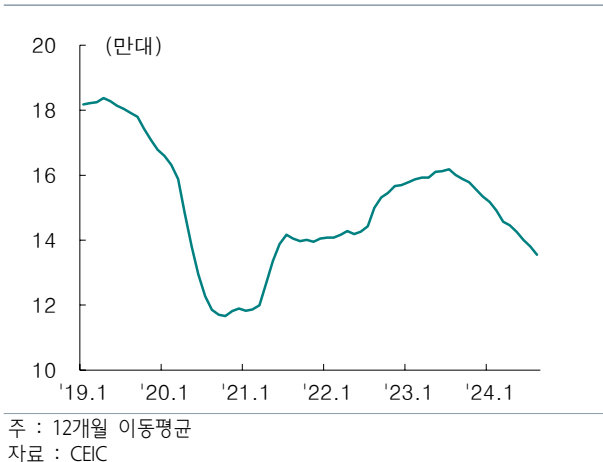
■ 태국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국가로 기존 일본계 완성차들의 위상이 하락하며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부품 생산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태국은 본래 일본 업체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왔으나, 중국의 저가 전기차 확대 및 가계 부채 증가, 수출 감소 등으로 차량 수요가 줄며 생산 활동 위축
 - '24년 1~8월 태국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17.7% 감소한 101만대로 부진
- BYD는 '22년 말 태국에 진출한 뒤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 '24년 1분기 태국 내 점유율 9%로 3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7월에는 방콕 남부에 15만대 규모의 자사 첫 동남아 공장을 완공하고 생산을 개시
- 이에 반해 스즈키와 스바루는 판매 위축 및 경쟁력 상실로 '25년 말에 태국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며, 혼다도 태국 내 2곳 중 1곳(아유타야)의 생산을 중단
- 중국 전기차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생산 유치에도 불구하고 일본계 내연기관에 의존했던 태국 부품업체들의 일감 감소를 매우긴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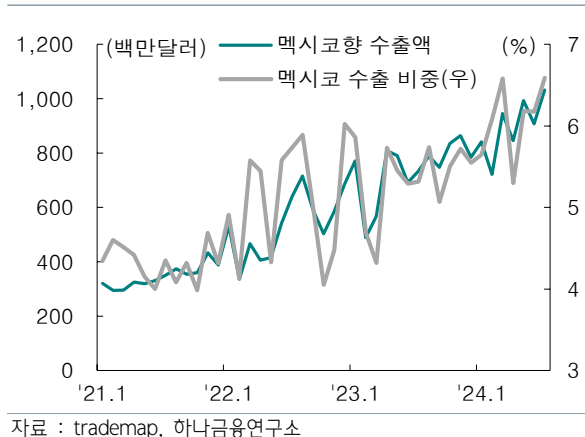
■ 중국 업체들은 美 견제를 우회하기 위해 멕시코에도 대거 진출했으며, 현지 생산 추진

- 중국 국영 상하이차(SAIC) 소속 MG모터는 지난 8월 멕시코에 생산시설과 R&D 센터 건설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BYD와 Chery자동차도 공장 건설 추진
- 멕시코에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협정에 따라 관세 부담을 최소화 하여 북미로 수출이 가능하며, 美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우회 진출을 우려
- 이에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USMCA를 개정하고 멕시코 산 자동차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발표
- 중국은 美에 상관없이 일차적으로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

■ 태국의 월별 자동차 생산량 변화



■ 중국의 對멕시코 자동차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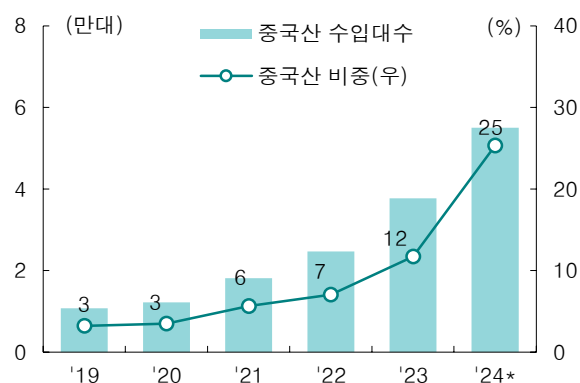
■ 한국도 중국산 자동차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중국산 전기차의 영향이 가시화

- 한국의 중국산 자동차 수입은 '19년 만대 수준에서 '23년 3만 8천대로 크게 늘어났으며, '24년에는 8월 누적으로 5만 5천대를 기록하며 전년의 성장세를 뛰어넘음
 - 국내 전체 차량 수입 중 중국산 비중은 '23년 12%에서 '24년 8월(ytd) 25%로 증가
- 올해 중국에서 수입된 전기차는 3만대가 넘는데 대부분은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3와 모델Y로 추정되며, 중국 지리그룹 산하 브랜드 폴스타의 폴스타2도 중국 청두 공장 생산분이 국내로 수입 중
 - '24년 1~8월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약 18만대이며, 이중 테슬라는 2.2만대 수준
- '16년 BYD 코리아를 설립하고 버스, 트럭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판매해온 BYD는 연내에 승용차 판매에 나설 예정이며, 지리그룹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도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어 국내도 본격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영향권에 접어들 전망

■ 국내 및 해외 주요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근본적인 가격 경쟁력 개선 등에 집중할 필요

- BYD 등 中 전기차 기업은 공급망 고도화를 토대로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이 둔화되는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외 공략 중
- 중국 기업들이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유럽,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가 있는 곳으로 점유율 경쟁이 심해질 전망
 - 다만, 미국, 인도 등 중국과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는 중국 기업들의 진출이 제한되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시장 확보에 비교적 유리
- 주요국 전기차 수요둔화와 중국의 전방위 공세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차별화된 차량 성능을 구현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한국의 중국산 자동차 수입 동향



주 : 2024년은 8월까지 누적 기준
자료 : KAMA

■ BYD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 동향

	국가	규모	가동(예정)
생산 중	태국	15만대	'24.7~
	우즈베키스탄	5만대	'24.6~
건설 중	브라질	15만대	'25년~
	헝가리	20만대	'26년~
계획발표	멕시코	미정	미정
	베트남	미정	미정
	인도네시아	15만대	'26년~
	튀르키예	15만대	'26년말~
	파키스탄	10만대	'26년~

자료 : 언론보도 종합

월가의 큰 손을 닮은 AI 운용 ETF 등장

정 안 선 연구원

핀테크기업 인텔리전트 알파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을 학습한 AI가 운용하는 액티브 ETF 상품을 출시했다. AI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AI 운용 ETF는 ‘17년 처음 등장해 시장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이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과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잔존한다. ETF 시장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에서는 AI 운용 상품군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AI 운용 상품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워렌 버핏, 데이비드 테퍼 등 12명의 투자자를 학습한 AI 기반의 ETF 상품 출시^[1]

- 미국의 핀테크기업 Intelligent Alpha는 ‘24년 9월 17일 워렌 버핏, 데이비드 테퍼 등 12명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투자 철학을 학습한 AI 운용 ETF ‘Intelligent Livermore ETF(LIVR)’를 출시
 - LIVR은 ChatGPT, Gemini, Claude 3개의 생성형 AI로 구성된 투자 위원회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으며 Meta, NVIDIA, Tesla 등 66개의 주식 종목으로 구성
- Intelligent Alpha는 ‘25년 1분기 내에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학습한 AI 기반의 새로운 AI 운용 ETF 상품 ‘Intelligent Omaha ETF’를 추가 출시할 예정
- 종목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던 기존의 AI 운용 ETF와는 달리 특정 인물들의 투자 철학을 학습한 AI 기반의 ETF 등장

■ ‘17년 등장한 AI 운용 ETF는 일부 상품의 경우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

- AI 운용 ETF 상품은 ‘17년 ‘AI Powered Equity ETF(AIEQ)’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
 - AIEQ는 IBM의 Watsons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
- (AIEQ) ‘21년 6월 기준 12개월 AIEQ의 수익률은 50.1%로 동일 기간 39.9% 수익률을 보인 S&P500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
- (AMOM) ‘23년 상반기 기준 16.3%의 수익률로 S&P500 수익률(14.9%)을 상회
 -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종목별 모멘텀 팩터를 최적화하고 강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50개 종목에 투자하는 알고리즘을 활용

[1] “New Chatbot ETF Promises to Mimic Warren Buffett, David Tepper”, Bloomberg News, 2024.9.18

■ 하지만, AI를 활용한 자산운용이 사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불충분한 상황

- ‘19년 출시된 QRL은 미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AI 운용 ETF로 출시 초기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주가 대폭락 시기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하락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시장보다 큰 폭의 손실을 기록
 - 가치주로 전환한 타 ETF와 달리 지속적으로 기술주에 투자한 QRL은 ‘20년 1분기 기준 30%이상 하락하며 동일 기간 약 20% 하락한 S&P500보다 큰 낙폭 기록
- 알고리즘이 복잡해짐에 따라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2]
 - 복잡한 알고리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특정 산업에 대해서 편향이 생기거나 편향이 타 산업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성 제기
 - AI가 반영하지 못한 기업 관련 이슈, 규제, 제약 조건 존재 여부 확인과정 필요

■ 국내에서는 AI 운용 ETF 상품군이 제한적인 가운데 상품의 잠재력에 대한 고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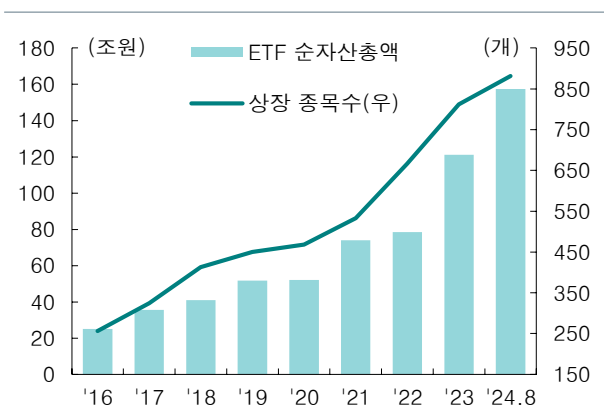
- 현재까지 국내에 출시된 AI 운용 ETF 상품은 3개, 출시 상품 수가 극히 미미
 - (FOCUS AI코리아액티브) ‘22년 상장된 상품으로 ‘24년 10월 기준 순자산가치는 178.5억 원이며 삼성전자, 셀트리온, POSCO홀딩스, SK하이닉스, NAVER 등에 투자
 - (TIGER AI코리아그로스액티브) ‘20년 상장된 국내 최초 AI 기반의 ETF 상품으로 ‘24년 10월 기준 순자산가치는 99.4억 원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등에 투자
 - (WOORI AI ESG액티브) ‘22년 상장된 상품으로 ‘24년 10월 기준 순자산가치는 69억 원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현대차, NAVER, 하나금융지주 등에 투자
- 금융권에서의 AI의 역할이 확대되며 ETF 시장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I 운용 ETF 상품 구축을 위해 리서치 및 인프라 자원에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3]되는 만큼 상품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대표적인 AI 운용 ETF 상품

펀드명	특징
VanEck Social Sentiment ETF(BUZZ)	‘21년 3월 상장 이후 한 달 만에 3억5,610만 달러의 자금 유입
WisdomTree U.S. AI Enhanced Value Fund(AIVL)	미국의 저평가된 가치주를 중점적으로 선별해 투자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상품
Qraft AI-Enhanced U.S. Large Cap Momentum ETF(AMOM)	국내 스타트업 크래프트의 상품으로 ‘21년 테슬라의 주가변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응으로 월가의 주목을 받음

자료 : 보도자료

■ 국내 ETF 시장규모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

[2] “How to mitigate AI discrimination and bias in financial services”, EY, 2023.03.17

[3] “Can investment management harness the power of AI?”, J.P.Morgan, 2024.05.22

미국·유럽, 이민자 특화 핀테크 확대

유 승 원 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며 이민자 대상 금융시장에 주목한 핀테크 금융서비스가 확대 중이다. 특히 이민자 비중이 높은 미국 및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핀테크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타 국가의 신용 기록을 활용한 신용 접근 기능, 해외 ID 활용 계좌개설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외국인(이민자) 시장이 주목받으며 특화 서비스가 확대 중인 상황에서 해외 핀테크의 동향에 주목하여 국내 금융서비스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금융 비즈니스 기회도 확대

- 2000년 1.7억 명이던 전 세계 이민자 수는 2020년 2.81억 명*으로 증가^[1]
* 전 세계 인구 대비 비중은 2000년 2.8%에서 2020년 3.6%로 증가
- 이에 따라, 국제송금액도 2000년 1,203억 달러에서 2023년 8,573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그 중 6,560억 달러가 중저소득 국가로 송금되어 GDP에 크게 기여
- 또한, 전 세계 이주노동자는 1.69억 명이며 수입 또한 수조 달러에 달하지만 대다수는 은행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미국에서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 확대

- (Nova Credit) 타 국가의 신용 기록을 활용해 이주한 국가에서 신용 이용 가능
- 멕시코, 케냐, 나이지리아, 한국 등 17개국의 신용 기록을 미국, 영국, UAE 등 5개국에서 이용 가능하게 제공하는 Credit Passport 서비스를 제공
- (Majority) 이민자 특화 챌린저뱅크 Majority는 월 회비 \$5.99로 스페인어 앱 및 상담원, 무료 무제한 송금, 무료 국제전화* 등의 기능을 제공
* 일부 국가의 경우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 국제전화에 대한 수요 존재
- (Comun) 이민자 특화 챌린저뱅크 Comun은 해외 여권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100종의 ID를 활용해 계좌 개설 기능을 제공하여 급성장
- (Welcome.Tech) 디지털 플랫폼 Welcome.Tech는 이민자 대상 금융서비스 외에 원격 의료 서비스, 언어교육, 커뮤니티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1] "World Migration Repor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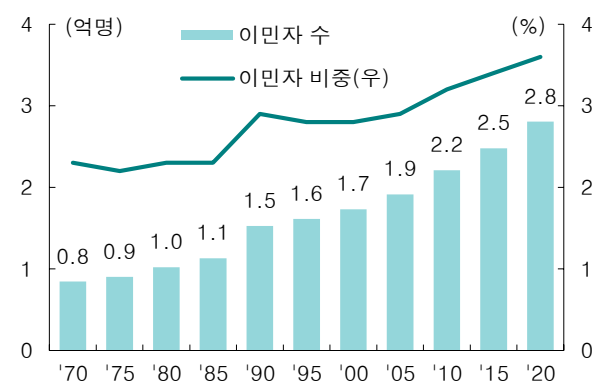
■ 유럽 지역도 이민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이에 주목한 핀테크들이 확대되는 추세

- (Yonder) 이민자를 대상으로 신용조회 없이 신용카드 발급 기능 제공
 - 영국의 핀테크 Yonder는 신용점수가 없는 이민자에게 15파운드의 가입비를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며, 결제액의 일부는 포인트로 적립되어 제휴물에서 사용 가능
 - 해외 결제 시 외환 수수료 없고 국내결제와 같이 결제금액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고, 하루 최대 150파운드의 무료 현금인출 기능도 제공
- (Bloom Money) 이민자 대상 저축클럽* 및 기초적인 영국생활 교육자료 제공
 - * 친구나 가족 등을 초대하고 각자 돈을 내고 돌아가면서 수령하는 것으로 계모임과 유사
 - 영국의 핀테크 Bloom Money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저축클럽을 운영하고 금융, 생활 등에 대한 영국 기초자료를 제공
- (Kadmos) 이주 노동자 중 선원을 대상으로 한 송금 및 급여관리 플랫폼 제공
 - 독일의 핀테크 Kadmos는 이주노동자 중 선원을 대상으로 한 송금 및 급여관리 플랫폼을, 해운회사에는 급여지급 솔루션을 제공하여 다수의 해운회사와 제휴

■ 국내 금융권도 해외 동향을 주시하며 외국인 대상 특화 서비스의 확대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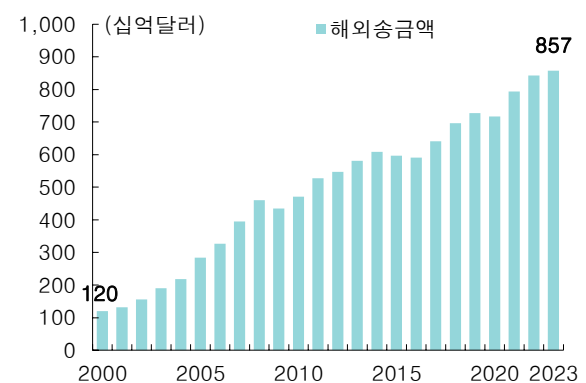
- 국내도 최근 외국인(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소득 수준도 상승하며 금융권에서는 해외송금, 예금, 카드 등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금융시장 주목
 - 정부도 '24.9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 이민정책을 발표하는 등 향후 외국인 금융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내 시장보다 먼저 이민자에 주목한 해외의 핀테크 서비스의 동향을 주시하며 국내 시장에 적합한 외국인 특화 금융서비스 확대를 검토할 필요 🇵🇹

■ 전세계 이민자 수 및 비중 추이



자료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전세계 해외송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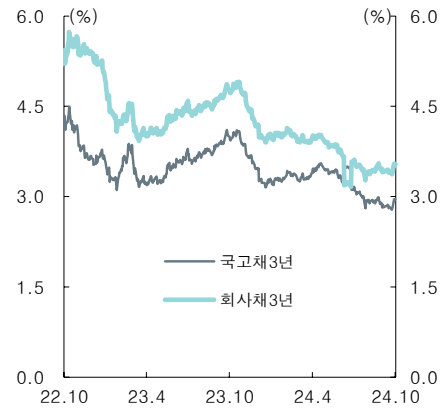


주 : 송금수취액 기준
자료 : KNOMAD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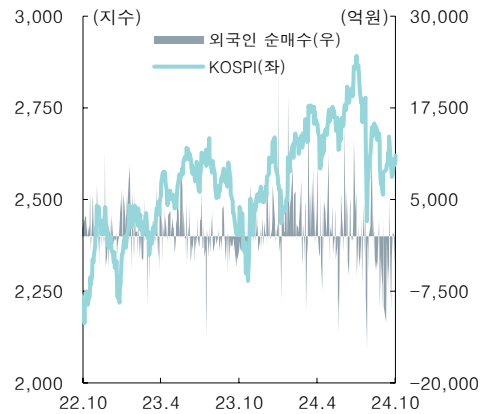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9월말	3.60	3.53	3.18	3.40	2.81	2.89
10월 2일	3.51	3.52	3.17	3.37	2.78	2.84
10월 4일	3.49	3.52	3.19	3.42	2.82	2.90
10월 7일	3.47	3.51	3.24	3.55	2.96	3.02
10월 8일	3.48	3.51	3.22	3.52	2.93	3.00
10월 10일	3.52	3.50	3.23	3.54	2.96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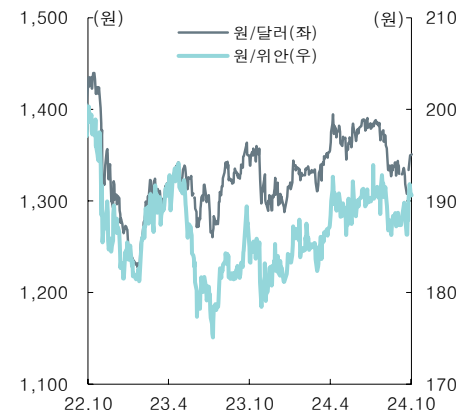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9월말	2,593.3	108,069	359	-10,032
10월 2일	2,561.7	96,079	351	-3,074
10월 4일	2,569.7	100,166	414	428
10월 7일	2,610.4	103,789	344	292
10월 8일	2,594.4	91,683	318	-3,810
10월 10일	2,599.2	138,676	619	1,626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9월말	1,307.8	910.3	186.3	1,455.7
10월 2일	1,319.3	900.7	187.9	1,457.0
10월 4일	1,333.7	896.7	190.0	1,463.6
10월 7일	1,346.7	908.6	191.8	1,477.6
10월 8일	1,349.7	910.7	191.2	1,481.7
10월 10일	1,350.2	908.6	190.7	1,4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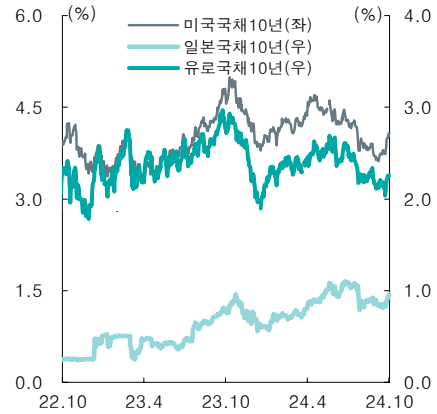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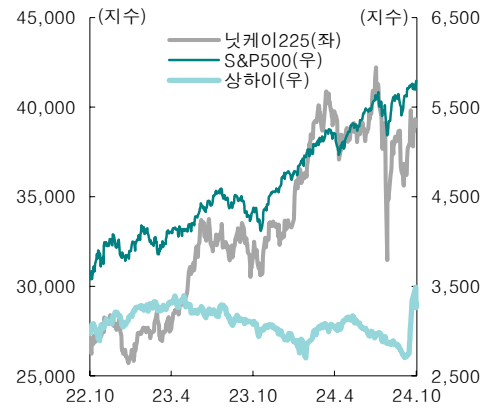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9월말	4.83	4.59	3.64	3.78	0.86	2.12
10월 4일	4.83	4.58	3.92	3.97	0.89	2.21
10월 7일	4.83	4.64	4.00	4.03	0.93	2.26
10월 8일	4.83	4.68	3.96	4.01	0.93	2.24
10월 9일	4.83	4.66	4.02	4.07	0.94	2.26
10월 10일	-	4.66	3.96	4.06	0.96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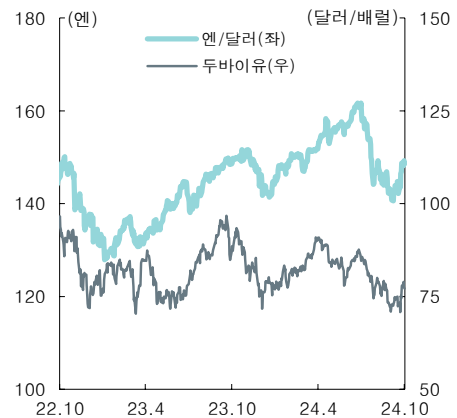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9월말	5,762.5	37,919.6	3,336.5	5,000.5
10월 4일	5,751.1	38,635.6	-	4,954.9
10월 7일	5,695.9	39,332.7	-	4,969.7
10월 8일	5,751.1	38,937.5	3,489.8	4,949.0
10월 9일	5,792.0	39,278.0	3,258.9	4,982.6
10월 10일	5,780.1	39,380.9	3,301.9	4,970.3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9월말	143.62	1.113	73.3	2,659.4
10월 4일	148.72	1.097	77.9	2,667.8
10월 7일	148.15	1.097	78.1	2,666.0
10월 8일	148.20	1.098	79.0	2,635.4
10월 9일	149.27	1.094	77.4	2,626.0
10월 10일	148.53	1.093	77.2	2,639.3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20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4년 10월 11일 인쇄

2024년 10월 14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20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